

<http://dx.doi.org/10.17703/JCCT.2022.8.2.47>

JCCT 2022-3-7

중국 상업은행의 대출자산에 대한 부실위험 분석

Analysis on Default Risk of Loan Assets of Commercial Chinese Banks

배수현*

Bae Soo Hyun*

요약 본 연구는 중국 상업은행의 대출자산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하고, 중국 상업은행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또한 자산규모 2천억 위안을 기준으로 중국 상업은행을 구분하고, 규모에 따른 안정성의 차이를 규명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상업은행의 가계대출비중과 기업대출비중이 증가할수록 은행의 안정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중국 금융당국이 은행의 부실자산 비중을 낮추기 위해 대출자산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적정 예대율 기준을 설정하여 대출자산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은행자산 2천억 위안을 기준으로 하여 대형은행의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규모가 큰 대형은행의 안정성이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형은행들은 대마불사의 원칙에 근거하여 공격적인 대출자산운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안정성이 더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부실자산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중국 상업은행의 대출자산 운용이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중국 상업은행들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대형은행들의 안정성을 규명해 봄으로써 대형은행의 취약점을 진단하여 지속가능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중국 상업은행, 대출자산, 부실위험, 은행규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isk level of Chinese commercial banks' loan assets and to analyze what factors affect the stability of Chinese commercial banks. In addition, Chinese commercial banks are classified based on the asset size of 200 billion yuan, and the difference in stability according to size is investigat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estimated that as the proportion of household and corporate loans of commercial banks in China increased, the stability of banks decreased. Although the Chinese financial authorities are currently restricting the conservative management of loan assets, it will be necessary to preemptively manage risk on loan assets by setting an appropriate standard for loan-to-deposit ratio in the future.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ability of large banks based on 200 billion yuan of bank assets, it was estimated that the stability of large banks was lower. As large banks are likely to conduct aggressive loan asset management, continuous management of non-performing assets is required in the future.

This study will serve as a measure for improving the stability of commercial banks in China by estimating the effect of loan asset management of Chinese commercial banks on financial stability. In particular, by examining the stability of large banks, a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is required by diagnosing the weaknesses of large banks.

Key words : Commercial Chinese Banks, Loan Assets, Default Risk, Bank Size

*정회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주저자)
접수일: 2022년 1월 10일, 수정완료일: 2022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8일

Received: January 10, 2022 / Revised: March 1, 2022

Accepted: March 8, 2022

*Corresponding Author: baesh@cu.ac.kr

Business School, Daegu Catholic University, Korea

I. 서론

2001년 WTO가입의 시작으로 중국의 금융산업이 본격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했으며, 2006년 외자은행의 중국진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기관의 부실예방과 건전성 확보, 자본시장 육성 등 주요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개혁의 심화과정 속에 있다.

2018년 8월 “중국은행보험 감독관리 위원회의 일부 규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해 중국은행에 대한 외국인 보유지분 제한의 폐지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1]. 이러한 금융시장 대외개방 확대조치는 금융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국 금융기관들에게는 자산운용 및 리스크 관리방법 등 선진 경영기법 도입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중국 상업은행은 중국경제성장률 하락, 한계기업의 도산 등으로 부실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은행이 생존불가능시점에 빠지지 않도록 부실채권 관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행 발행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은행 보험감독위원회는 2022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부실 은행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농촌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제시하면서 금융리스크의 지속적인 예방과 완화를 추진하고 금융측면의 구조개혁을 강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2].

현재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평가는 부실채권과 평균 자기자본비율 등의 지표가 양호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은행들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대하여 일부 우려의 시각도 있다. 중국 감독당국은 예대비율을 75% 적용토록 하여 대출자산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부실 발생시 높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3].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상업은행의 대출자산의 위험도를 확인하고, 은행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또한 중국 상업은행을 자산규모 2천억 위안을 기준으로 하여 규모에 따른 안정성에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중국 상업은행들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 연구에서 부실위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거시경제변수와 은행특성변수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중국 상업은행의 안정성을 대출자산 운용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없다. 또한 규모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여 중국 상업은행들의 대출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수립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위험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꾸준히 감소했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금융위기 전·후 더미를 추가한 분석에서는 금융위기 이전의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동안 부실위험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부실위험을 결정하는 요인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4].

중국 상업은행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부실대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거시경제변수와 미시경제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는 국내총생산증가율, 화폐공급증가율이 거시경제변수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대비율, 자기자본비율, 기업경기지수, 상업은행채테크발행규모 등의 변수가 미시적 영향 요인임이 분석되었다. 특히 예대비율이 증가하면 부실대출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채테크발행규모가 증가하면 부실대출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기지수가 상승하면 경영상황이 좋아져 부실대출율이 낮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5].

중국 상업은행들의 대출과 부동산가격 간에 상호인관관계를 입증하고, 부동산 가격변동과 은행대출과의 관계를 분석한 바 부동산가격의 급상승 또는 급하락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은행대출에 있어 지역별로 세분화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6].

중국 상업은행을 규모별로 구분하여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분석기간으로 하여 부실위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형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과 부실위험 간의 양의 관계를 가지며, 수지비율과 부실위험과는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형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과 부실위험 간의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7].

중국 상업은행의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그림자금융을 들 수 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3개 은행을 분석한 결과 그림자금융 비중은 중국 상업은행 수익성에는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전성에는 음(-)의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있다[8].

한국은행들의 대상으로 하여 대출포트폴리오와 자산 건전성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은행들로 하여금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대출 위주의 자산운용행태를 지향하여 재무건전성 변화를 초래한다고 설명한다. 즉 재무건전성은 은행들의 자산 운용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9].

저축은행의 자산운용이 수익성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모별 및 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는 기업대출비중의 증가는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가계대출비중의 증가는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도 제고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대형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가계대출비중이 증가할수록 수익성은 제고되나 안전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비수도권지역 상호저축은행은 가계대출비중을 증가시킬수록 수익성과 안전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10]. 즉 규모와 지역에 따라 상이한 전략을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규모 은행의 경우 사업다각화로 인하여 비이자 수익의 비중이 높아 이익변동성이 증가하고, 은행 대형화가 시장집중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효과는 안정적인 이익 창출로 이어져 대출자산 운용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11].

은행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주장하고 있으며, 대형은행이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에 따른 위험조절 능력이 있어서 은행 재무건전성이 대출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12].

한국은행의 가계대출비중과 재무건전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의 가계대출비중은 은행의 재무건전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전·후를 비교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의 은행 가계대출과 재무건전성 간의 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 가계대출비중의 증가세는 많이 둔화되었으며, 이와 함께 재무건전성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13].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상장된 10개 중국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20년 동안 11년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중국인민은행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 중국은행감독원의 공시자료 및 해당은행들의 연차보고서에서 추출하였다.

연구모형은 제시된 모형(1)과 모형(2)와 같다. 종속 변수는 은행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Z-scor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은행의 대출자산인 가계대출비중과 기업대출비중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 은행 특성변수로 고정이하여신비용, 자기자본비용, 예대금리차를 이용하였으며, 거시경제변수로는 소비자물가지수증가율, 경제성장률을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에 적용되는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사이에 1년의 시차를 두어 내생성 문제를 줄였다.

$$y_{i,t} = \alpha + \beta_1 HOM + \beta_2 ENT + \beta_3 NPL + \beta_4 CAR + \beta_5 GAP + \beta_6 CPI + \beta_7 GDP + \tau D_t + \delta_i + \epsilon_{i,t} \quad \text{-----}(1)$$

$$y_{i,t} = \alpha + \beta_1 HOM + \beta_2 ENT + \beta_3 NPL + \beta_4 CAR + \beta_5 GAP + \beta_6 CPI + \beta_7 GDP + \beta_8 SIZE + \beta_9 SIZE * ENT + \tau D_t + \delta_i + \epsilon_{i,t} \quad \text{-----}(2)$$

모형 (1)에서 $y_{i,t}$ 는 중국 상업은행 i 의 t 기의 은행 안정성을 나타내는 종속변수이다. HOM 은 중국 상업은행의 전기 가계대출비중을 나타내고, ENT 는 전기 기업대출비중을 나타내는 독립변수이다. 그 외 은행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통제변수로 고정이하여신비용(NPL), 자기자본비용(CAR), 예대금리차(GPA)를 이용하였으며, 은행 외부의 거시경제변수로서 소비자물가지수증가율(CPI), 경제성장률(GDP) 변수를 이용하였다.

모형(2)에서는 모형(1)에 은행 규모에 따른 더미변수($SIZE$)를 추가하여 규모에 따른 안정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교차함수($SIZE * ENT$)를 이용하여 은행 규모와 가계대출비중의 상호작용에 의해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지 추정하였다. $\tau D_{i,t}$, δ_i , $\epsilon_{i,t}$ 는 각각 년도효과, 중국 상업은행의 고유특성을 나타내는 개별효과, 순수

오차항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Hausman 검증을 바탕으로 하여 확률효과 GLS(Random effects Generalized Linear Square)모형으로 추정하였다.

2. 변수의 정의

표 1은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표 1. 변수의 측정지표
Table 1. Variable Measurement

구분	변수명	설명
종속 변수	채무안정성 (<i>Z-score</i>)	(총자산순이익률 + 자기자본비율)/(총자산이익률의 표준편차)
설명 변수	가계대출비율 (<i>HOM</i>)	가계대출/총여신
	기업대출비율 (<i>ENT</i>)	기업대출/총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 (<i>NPL</i>)	고정이하여신규모/총여신
	자기자본비율 (<i>CAR</i>)	자기자본/총자산
	예대금리차 (<i>GAP</i>)	수신가중평균금리-여신가중평균금리
	소비자물가지수 (<i>CPI</i>)	전년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경제성장률 (<i>GDP</i>)	전년동기 대비 실질GDP 성장률
	규모더미변수 (<i>SIZE</i>)	은행 자산규모 2천억원 이상:1 2천억원 미만:0
	상호작용변수 (<i>SIZE*ENT</i>)	규모와 기업대출비중 간의 상호작용

종속변수는 상업은행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예상부도확률(*Z-Score*)을 사용하였으며, 총자산순이익률과 자기자본비율을 합제한 금액을 총자산이익률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예상부도확률은 은행의 부도위험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상부도확률이 클수록 부도위험과의 거리가 멀어져 안정성은 높아진다. 가계대출비중(*HOM*)은 가계대출 총액을 총여신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기업대출비중(*ENT*)은 기업대출 총액을 총여신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그 외 안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통제변수로 고정이하여신비율(*NPL*), 자기자본비율(*CAR*), 예대금리차(*GPA*)를 이용

하였으며, 은행 외부의 거시경제변수로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CPI*), 경제성장률(*GDP*) 변수를 이용하였다. 은행규모에 따라 규모더미변수(*SIZE*)와 상호작용변수(*SIZE*ENT*)를 이용하였다.

IV. 실험 및 결과분석

1. 표본은행 통계량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2와 같다.

표 2. 기초통계분석
Table 2.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변수명	mean	sd	min	max
예상부도확률 (<i>Z-score</i>)	36.466	4.918	26.760	46.256
가계대출비율 (<i>HOM</i>)	15.785	4.948	8.351	31.384
기업대출비율 (<i>ENT</i>)	34.038	6.315	20.890	50.413
고정이하여신비율 (<i>NPL</i>)	1.327	0.412	0.38	2.39
자기자본비율 (<i>CAR</i>)	6.886	1.052	4.818	8.940
예대금리차 (<i>GAP</i>)	2.145	0.355	1.113	2.96
소비자물가지수 (<i>CPI</i>)	2.290	1.409	-0.7	5.4
경제성장률 (<i>GDP</i>)	7.835	1.372	5.95	10.64

은행의 안정성 지표로 사용된 예상부도확률(*Z-score*) 변수의 평균은 약 36.47%이다. 가계대출비중의 평균은 약 15.79%이고, 기업대출비중의 평균은 약 34.04%로 대출자산 중 평균적으로 기업대출비중이 더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고정이하여신비중(*NPL*)의 평균은 약 1.32%이고, 자기자본비율(*CAR*)의 평균은 약 6.89%로 중국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실증분석 결과

표 3은 중국 상업은행의 대출자산이 채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가계대출비중은 안정성 간의 관계는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기업대출비중도 안정성 간의 관계가 5%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즉 대출비중이 증가할수록 안정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안정성과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부실채권이 증가할수록 은행의 안정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비율은 안정성과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자기자본이 높을수록 은행의 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부도위험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예대금리차는 안정성과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자기자본이 높을수록 은행의 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의 안정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제성장률과 안정성 간의 관계는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경제상황이 좋을수록 은행의 안정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 분석결과 1
 Table 3. Result of Random-Effects GLS Regression

종속변수 <i>Z-score</i>	계수	t-값
가계대출비율 (<i>HOM</i>)	-0.104	-5.97***
기업대출비율 (<i>ENT</i>)	-0.033	-2.27**
고정이하여신비율 (<i>NPL</i>)	-0.453	-2.66***
자기자본비율 (<i>CAR</i>)	5.154	55.32***
예대금리차 (<i>GAP</i>)	1.015	5.62***
소비자물가지수 (<i>CPI</i>)	-0.011	-0.30
경제성장률 (<i>GDP</i>)	0.298	4.21***
cons	-0.127	-0.13
<i>htdm</i>	Included	
<i>Within R-sq</i>	0.9876	
<i>No. of obs</i>	110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4는 중국 상업은행을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규모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차이가 있는지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은행자산 2천억 위안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1, 미만이면 0으로 하여 더미변수를 주어 측정된 결과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측정

되어, 규모가 큰 대형은행의 안정성이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기업대출비중에 의한 것인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상호작용변수(*SIZE* ENT*)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값을 보이지 않았다.

표 4. 분석결과 2
 Table 4. Result of Random-Effects GLS Regression

종속변수 <i>Z-score</i>	계수	t-값
가계대출비율 (<i>HOM</i>)	-0.073	-3.97***
기업대출비율 (<i>ENT</i>)	-0.006	-0.39
고정이하여신비율 (<i>NPL</i>)	-0.318	-1.94*
자기자본비율 (<i>CAR</i>)	4.802	44.86***
예대금리차 (<i>GAP</i>)	0.720	3.79***
소비자물가지수 (<i>CPI</i>)	0.045	1.29
경제성장률 (<i>GDP</i>)	0.135	1.98*
규모더미 (<i>SIZE</i>)	-1.734	-1.78*
상호작용변수 (<i>SIZE*ENT</i>)	0.031	1.49
cons	2.803	2.63
<i>htdm</i>	Included	
<i>Within R-sq</i>	0.9891	
<i>No. of obs</i>	110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V. 결 론

본 연구는 중국 상업은행의 대출자산의 위험도를 확인하고, 중국 상업은행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상업은행을 자산규모 2천억 위안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고, 규모에 따른 안정성에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상업은행의 가계대출비중과 기업대출비중이 증가할수록 은행의 안정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중국 금융당국이 은행의 부실자산 비중을 낮추기 위해 대출자산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도록 제한

하고 있으나, 향후 적정 예대율 기준을 설정하여 대출 자산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은행자산 2천억 위안을 기준으로 하여 대형은행의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규모가 큰 대형은행의 안정성이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형은행들은 대마불사의 원칙에 근거하여 공격적인 대출자산운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안정성이 더 낮아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부실자산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중국 상업은행의 안정성을 대출자산 운용 측면에서 분석하고,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중국 상업은행들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형은행들의 위험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대형은행의 취약점을 진단하여 대출 상환능력 평가, 관계금융확대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실무적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중국 상업은행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인해 많은 은행들을 표본에 넣지 못하였으며, 향후 데이터를 추가하여 중국 상업은행을 대출자산에 대한 분석을 다각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References

- [1] Korea Institute of Finance, china Inside, “Major research trends in China”, Financial Brief, 27 (20), pp.25-26, 2018.
- [2] Bank of Korea, “Assessment of structural risk factors constraining China’s mid- to long-term growth”,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8, pp.1-34, 2021.
- [3] Bank of Korea, “30 Years of Financial Reform in China Achievements and Tasks”, Research, 2011.
- [4] Ri Shu Quan, “Analysis on Default Risk of Chinese Commercial Banks Using Z-Score: Focusing on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18(1). pp.239-268, 2016.
- [5] Yan Li and Sok Tae Kim,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Non-performing Loans in Chinese Commercial Banks”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22(3), pp.93-113, 2020. <https://doi.org/10.15798/kaici.2020.22.3.93>
- [6] Sun Jin Kim and Eun Hye Lee,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 Prices and Bank Lending in China” The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5(1), pp.1-26, 2018. <https://doi.org/10.34243/jcas.5.1.1>
- [7] Lee, T. H. and Chih, S. H., “Does Financial Regulation Affect the Profit Efficiency and Risk of Banks,” North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26, pp.705-724, 2013. <https://doi.org/10.1016/j.najef.2013.05.005>
- [8] Hongtao Shen and Soo Hyun,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Shadow Banking on the China’s Bank’s Profitability and Soundness”,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and Accounting, 17(1), pp.73-99, 2019. DOI : 10.32956/kaoca.2019.17.1.73
- [9] Ji Yong Seo, “The Study on Influence from Change of Financial Soundness of Korean Banks over Loan Portfolio”, Industrial Economics Research, 24(4), pp.2075-2088, 2011.
- [10]Soo Hyun Bae, “Effects of Savings Banks’ Asset Management Behavior on Profitability” Academic Society of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13(4), pp.181-205, 2016.
- [11]Fayman, A., “Large Banks versus Small Banks: How Different are They?”,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Policy. 13(1), pp.85-98, 2009.
- [12]Park, R.J. “Key Financial Indeses Classifying Banks and Savings Bank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 pp. 719-730, 2013.
- [13]Sang Wook Lee, “Household Loans and Financial Stability in Korean Bank Industry”, The Korean Research Association for the Business Education, 30(1), pp.123-138, 2016.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3798>